

<2025년 1월 15일 수요말씀>

하나님 성령님이 좋아하게 자기를 만들어라

본 문 :

<이사야 11장 1-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데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데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주일은 ‘온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성령님이 좋아하게 자기를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전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사물이나 사람이나 자기가 좋아해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버리지를 않는다.

하나님 성령 주도 그러하다.

사람도 상대가 아무리 사랑하여도

자기가 안 좋아하면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자기가 좋아해야

일생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게 된다.

좋아하려면 좋은 점을 매일 발견하고

매일 좋아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 나무나 돌도 몰라서 귀한 것을 보통으로 알면

팔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

한번은 선생이 돌 작품을 배우고서

하나님 성전에 놓을 것을 사러 갔다.

좋은 것이 있었는데,

주인은 보통으로 보고 보통 값을 달라고 했다.

성령은 감동을 주시며

“저 돌 아주 귀한 작품이다. 사자.” 하셨다.

누가 보아도 특이하고 조각해 놓은 것 같았다.

수석에 눈뜬 자만 안다.

○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서 귀한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

하나님은 가치를 알고 기뻐하는 자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신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를 행하여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얻게 된다.
받고 얻어서 좋아하며 살게 된다.

◎ 삶의 또 다른 기쁨은 이것이다.

이 시대는 ‘사랑의 시대’이니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 주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그를 배우고 행하여서
자기가 주 안에 기뻐하면서 얻고 누리며 사는 기쁨이다.

황금천국을 귀히 여기며 가야 한다. 사랑 휴거다.
휴거의 비밀은 성령도 성자도 동일하게
“절대 끝까지 사랑이다.” 말씀하셨다.

진실로 사랑해야 통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대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고로 목숨 다해 정성으로 해야 한다.

자기 믿음대로 마음껏 행하기다.
차원이 낮아서 못 행하는 자들은
되려 다른 자를 보고 흠만 잡는다.
미련한 자들은 연애도 사랑도 주인이 못 된다.

○ 지난날 하나님 앞에 행한 자들, 보람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것을 이유로 그 조건 위에 계속 주신다.

변치 않으면 죽은 후에도 영에게

육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았다고 하시며 계속 주신다.

또한 자가

“왜 저 자에게만 주십니까.” 하면

“저 자는 육이 살았을 때 변치 않고 사랑했다.

너는 저같이 했냐.”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말씀하신다.

○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을

신부같이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시대다.

고로 사명자는 이 시대에 맞는 조건을 세우며 시대를 도왔다.

오직 사랑의 신앙, 실천의 신앙이었다.

하나님은 표상자가 조건 세우는 대로 모두 대해 주신다.

신약 시대도 그러했다.

전체 대표가 조건 세운 대로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같이 대해 주신다.

- 구약은 종의 시대였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모두 종으로 대하셨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종의 입장에서 주인 섬기듯 섬기었다.

- 신약 때는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아들의 조건을 세우셨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자녀권 권세를 주시어,

삼위체를 부모 섬기듯 하였다. 2000년간이었다.

- 이 시대는 보낸 자가 신부 조건 세워서

약속대로 천 년 혼인 잔치 구원역사하고 신앙 잔치한다.
 고로 신부 대상으로 대하신다.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모두 신랑으로 대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휴거의 역사다.
 육도 영도 그러하다.

- 구약은 구약급 구원과 영계,
- 신약은 신약급 구원과 영계,
- 성약은 성약급 구원과 영계다.

행한 대로다.

고로 이 시대는 황금천국 영의 세계다.

알고서 믿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모르면 한 차를 탔어도 기쁘지도 좋지도 않고 보람도 없다.

모르면 한 시대를 같이 가도 기쁘지 않고 좋지 않다.

- ◎ 이 시대는 하나님이 때가 와서 하신 역사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하시었다.

- 엘리야와 모세가 온다고 하고

900년 후에 영이 오고, 1300년 후에 영으로 와서

예수님 때 함께 하였다.

육 있는 예수님을 중심하여 하였다.

(마 17:1-3)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온다는 자는 이같이 영이 온다.

**하나님은 그 영이 그 시대 사명자 육신 쓰고
다 행하게 하시었다.**

이것이 성경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천륜의 법이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다시 온다고 하고 영으로 왔다.

**세례요한이 나타나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여야 하였다.**

(말 4:5)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 17:12-1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마 11:12-14)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찐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눅 1:17)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 하나님 계획이라 새 시대, 약속한 시대가 오면

온다는 자는 영으로 와서 한다.

육은 자기 당세에 죽었다.

온다고 약속했어도

다음 시대는 수백 년, 수천 년 후라 못 온다.

육은 죽고, 다음 시대에 영으로 와서

새 시대 사명자의 육신 쓰고 한다.

하나님도 새 시대가 오면 차원 높여서

그 새 시대 보낸 자에게 사명을 주어

성령과 함께 그 생각을 주시며 같이 뜻을 펴신다.

○ 예수님도 신약 때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다.

사람 육은 메시아든 선지자든 그 누구나 당세 때 죽는다.

예수님도 그 영이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2000년 동안 나타나서 함께하시었다.

2000년이 끝나고

새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온다는 자의 그 심정과 사명으로 행한다.

온다는 자는 영으로 협조하여

그 육신을 쓰고 시대 하나님 뜻의 역사를 펴 간다.

천 년 동안 신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펴 간다.

이를 깨닫고 알고 행하는 자,

시대 최고 복이 있는 자들이다.

◎ 사명자는 제대로 알고 행하니,

그에게 배우고 제대로 알고 하여라.

모르는 자는 사고 나고,

평생 알 때까지 못 행하고 죽는다. 불행하다.

모르면 하다가도 몰라서 믿음이 흔들린다.

지진 나서 땅이 흔들려서 위치 뜨듯 한다.

믿음은 아는 데서 난다.

고로 모르면 의심되고 행치 않게 되니,

배우고 확신에 서라.

○ 시대가 와야 그 시대에 해당하게 가르친다.

새 시대가 왔어도 성장하여야 가르친다.

성약역사가 왔어도 성장하는 대로 차원 높여 가르친다.

또, 저마다 자기 성장에 따라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도 자기가 성장한 대로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담대하게 희망으로 행한다.

○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 대로 행하는 자를 보고 이해를 못 한다.

어린 자는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나

돈 많은 재벌가가 가진 것을 상상도 못 한다.

큰 사업가들은 비행기 수백 대씩 사서 항공 사업하고,

큰 건축가들은 수천 채씩 집을 지어서 팔고

자기도 수십 채씩 가지고 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하여

재벌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운동으로 그 방면의 민족 대표도 된다.

그렇게 신앙 세계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대로 택함 받고 시대에 쓰인다.

선지자, 중심인물, 메시아 각종 사명으로 쓰인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얻고 사는 것, 하나님께 큰일 하는 것을

이해 못 하고, 오히려 반대한다.

악평하고, 사탄과 귀신들과 하나 되어 막고 핍박한다.

예수님 때도 사도 때도 그같이 하여 행한 대로 심판받았다.

○ 이 시대도 그러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권한이 있어

하나님과 성령과 같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가나안 복지 원주민들같이 심판한다.

혹은 요한계시록 11장같이 물이 피 되게 하며

사명으로 환경까지 행한 대로 대한다.

(계 11: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행한다.

-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기에게 해를 준

850명 우상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모두 심판했다.

(왕상 18:19)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 오십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왕상 18:40)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

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 모세도 애굽 민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행한 대로 받게 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갓은 고통을 주며 행하였다. 죽이고 멸했다.
그래서 그들만 망하고 죽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주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다.

▶ 참고 성구 : 출애굽기 7장~12장

-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주고 묶고
하나님의 일을 못 하게 하면
하나님은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행한 대로 그 악을 심판하시었다.

이 시대도 하나님 하시는 일들 막고 방해하면
개인, 민족, 세계를 행위대로 갚고 행하신다.

-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게 반대했다.
하나님은 후에 모두 멸하시고 고통으로 갚으셨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 참새 날짐승 생명도 허락해야 죽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섬기고 사는 너희는 걱정 말아라.

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생명을 죽게 허락하겠느냐.” 하셨다.

선생도 인생 살아오면서

전쟁에서 각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60번 이상 죽음에 처해서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절대 보호해 주셔서 살았다.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도 살았다.

하나님은

“섭리역사도 모두 그같이 보호한다.

표상자같이 대한다.

사랑의 신부들이므로 그리한다.” 하셨다.

- 생명은 ‘자기 책임분담’ 과 ‘하나님의 돕고 보호함’ 이다.
생명은 아무리 조심하여도 실수하게 되고
기계 고장 혹은 의지한 사람이 한계가 있어

책임분담 못함으로 죽기도 한다.

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뜻이 있으면 희생으로 죽어 많은 자들을 살리기도 한다.

◎ 지난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 주셨으니 감사하고

사랑하며 영광 돌리고,

특히 연말·연초에 영광 돌리자고 하였다.

하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같은 네 민족을 떠나지 말고

너희를 보호해 준 하나님 성령 주께

연말 연초 영광 돌리어라.” 하셨다.

○ 고로 선생은

“너희는 하나님이 월명동을 주셨으니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놀자.” 하였다.

외국에 가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하나님이 이같이 뜻을 두고 만드신 것이 없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수고한 자들, 처음 온 자들 월명동에 오면 대접하라.” 하셨다.

월명동은 수십 번 와도 재미있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며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좋으나.

하나님이 귀한 것들, 외국 가야 보는 것도

월명동에 사다 놓아 주셨다.

외국 어디를 가도 없는 월명동에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항상 만나 주시니 얼마나 좋으냐.

항상 연말·연초에 월명동에서 영광을 돌려라.
 올해는 특히 복음을 전하여서 모두 알게 하여
 저희도 너희같이 하게 하여라.

- 겨울에는 아주 조심하고, 차도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
 성령길은 겨울에 완전히 제설작업 한 뒤에 다녀야 한다.
 위험하면, 성령길 밑에 차 놓고 걸어 다니면 안전하다.
 선생은 기도할 때 대둔산 용문골까지
 20년간 1시간씩 걸어 다니었다.
 겨울에는 특히 완전하게 하여라.

썰매 스키 타는 데도 안전 조심이다.
 반드시 감독 세워 놓고 관리해야 된다.

산이 얼었을 때 기도 다니다 넘어지면 다치기도 하고
 잘못 넘어지면 죽기도 하니
 빙판길에 극히 조심하고, 안전한 데서 기도하여라.

선생은 안전하게 자연 성전 잔디밭에서 스키 배우고
 스위스 융프라우 스키장에서 활강하였다.
 미국 육사 스키 부대 근무자와 시합해서 이겼다.

- 멀리 가지 말아라.
 월명동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즐긴다.

하나님께서 월명동을 여러 가지로 사용케 해 주셨다.
 등산 코스, 산책 코스,
 겨울에는 스키 썰매장, 여름에는 수영장,
 예배 장소, 각종 대회와 집회 때 수만 명씩 모이는 광장,
 운동장, 축구장, 일하고 와서 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등
 하나님은 모두 각종으로 합당하게 쓰게 하셨다.
 항상 하나님 성령께서 만나 주시며 역사하신다.
 약수로 건강케 해 주시는 장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연 궁이다.
 만든 대로 귀하게 써야 한다.

◎ 좋아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안 버린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

○ 육적 신앙, 생활 신앙이 결국 체질 된다.
 영적 신앙으로 튼튼하여라.

매일 생활 속에 ‘삶의 신앙’ 이다.
 자기 육이 ‘하나님 성령 육의 육’ 이 되어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다.

또 정신, 혼, 영의 신앙이 들어가면
 더욱 확신하는 신앙이 된다.
 영계에 가서 보기 때문이다.

○ 또 ‘과학적 신앙’ 이 들어가면 더욱 신앙이 굳건하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의 오묘함을 알기 때문이다.

존재물을 보면 오묘하다.

그것을 알면 웅장한 신앙이 들어간다.

- 태양도 부분적으로 흑점이 생긴 곳을 보면 식어 있다.

그리고 때가 11년쯤 되면 또 폭발한다.

고로 다시 불덩이가 된다.

식으면 다시 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은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도 일하다 잠시 쉬면 또 힘이 생겨 일하게 된다.

너무 쉬어 신앙이 식으면

신앙이 다시 폭발되게

또 하나님이 시작하여 뜨겁게 하신다.

역시 태양과 같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신앙이 식은 자, 또 하면 된다.

- 공기는 데워지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식으면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단면이 다르다.

사람도 다시 열심히 해서

심정과 행실을 뜨겁게 하면 다시 날게 된다.

- 태양 폭풍이 지구까지 오면 사람이 사는데 힘들다.

이를 막아 주는 일을 태양이 한다.

지구에서 태양으로 받는 열로 에너지가 생겨서

전기가 퍼져 나가 태양풍을 막아 준다.

사람도 자기로 또는 타인으로 상대가 해를 입으면,
자기가 돕고 막아 주는 태양같이 하여라.

이같이 신비한 자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고로 자연 만물을 통해 과학적 신앙이 들어가면 굳건하다.

-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여 생명체가 살게도 해 준다.
또한, 지구에 어떤 해(害)가 가면
그것을 태양의 빛으로 막아 주는 일도 한다.
하나님은 자연의 세계를 이같이 신기 오묘하게 존재하게 하셨다.

태양같이 하나님은 온 인류를 따뜻하게 해 주시고
수백 수천 각종으로 생명과 삶을 도우신다.
사람도 그같이 살아야 한다.

- 달도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우리의 어두운 밤만 비취 주지 않고,
태양과 지구, 달이 서로 잡아당겨 밀물과 썰물이 생기게 한다.
세 존재가 일직선을 이룰 때는 가장 높이 바닷물이 들어와
먼바다에서 물과 고기가 물려오게 한다.
다른 나라의 것들도 서로 오가게 하며
하나님이 잡아먹게 해 주셨다.
밀물 썰물 때문에 바다에 해산물 농사짓게 되었다.
달이 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
달은 달력이 되기도 했다.

- 지구는 우주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다른 별, 달에는 사람이 못 산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수천 가지로 나타내셨다.

-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을 보고 알아야
철강 기둥같이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들어간다.
고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지식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니
학생들은 열심히 배워야 한다.
신앙과 학문을 따로 보지 말아라.

예수님도 성령도 선생에게 과학 공부를 많이 시키셨다.
의학도 천문학도 지구과학, 물리학도 배우라고 하셨다.
배우니,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알고
신앙이 더 굳건하게 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배우면서
신앙을 제대로 하면 굳건하다.

사람이 의학과 과학을 알면 더 신기하여
더욱 신앙도 굳건해지니 생명 관리도 잘한다.

- 월명동을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보고 알면
하나님이 이같이 천지창조 하셨음이 더욱 믿어진다.
선생도 월명동을 통해 축소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배웠다.
이같이 보면 확대한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창조물이

더욱 확실하게 믿어진다.

철저하게 배우고 행하자.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

시대 지식인들을 전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

그가 행해 주신 것을 연구하며 그의 존재하심을 알 때

더욱 신기하고 믿음이 굳건해진다.

○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냥 믿기만 한다.

이들이 섬기는 우상 신은 섬길만한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령 성자 구원자를 믿으면서

오히려 우상의 신들을 쫓아낸다.

오직 전능자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성령 성자 신이시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

모두 확실히 알아라.

시대 사명자들도 그러하다.

우상 신은 사망에 거하니,

우상 신을 믿어도 그들은 오히려 빛에서 사망으로 간다.

샤머니즘 신앙의 신 역시 잡신들로,

이들은 구원 못 받고 다니는 영들이다.

그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믿는 것은 몰라서다.

오직 전능자, 제대로 섬길만한 자를 섬기어라.

천국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예수님같이 천국에 간다.

(말씀 마쳤습니다.)